

대학부터 교육틀을 '원탁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강치원

강원대 사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학교는 죽었다.” 이는 새해 벽두 주간지 『한겨레21』이 기획한 대형특집 ‘대한민국이 절망스럽다’의 교육부문 기사제목이다. 기자는 <취라기 공원> 한 편의 수익금이 1년 동안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7천여 억 원과 맞먹는다는 최근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짓밟히는 우리 교육현장의 비극’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해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벨 교수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나라들도 시간 문제지 한국 정도의 수준에는 곧 도달할 수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개발 패러다임을 연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지역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과외비가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의 교육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의 교육은 4~5지 선다형 평가를 특징으로 한다. 대학 입학 때부터 졸업후 취직시험을 볼 때까지 모든 과정이 그렇다. 이같은 찍기식 평가는 일방적 주입식 수업을 강요하고, 다시 주입식 수업은 모범답안 암기식 학습을 결정 짓는다. 대학과정 역시, 비록 찍기식 평가는 아니지만, 주입식 수업, 모범답안 암기식 학습인 점은 마찬가지다.

우리 교육틀은 한마디로 강당 교육이다. 현재의 교육틀을 돈 적게 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오산이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교육열에 있다기보다는, 국가에서 공교육비를 적게 쓰는 데 있다. 또 현재의 틀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데 적합하지도 않다. 이제 일류대학

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점차 변하고 있다. 실력이 있는 학생보다는 부유한 환경의 학생이 보다 유리해지고 있다. 현재의 평가방식은 참다운 실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누가 더 죽집게 과외를 많이 받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현재의 틀이 공·사교육비를 합하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죽이고 있다는 데 있다. 창의력은 선다형 문제의 5가지 보기 밖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취직시험에 이르기까지 고르거나 찍기가 아닌, 쓰기와 말하기로 실력을 평가한다.

우리의 교육들은 강당식에서 원탁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원탁교육이라 함은 실제로 원탁을 갖다 놓자는 말이 아니다. 그 개념은 이렇다. 한 학생이 10권의 학습참고서를 암기하는 것보다 한 권의 원전을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한 학생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10명의 학생이 같은 책을 읽고 문답, 대화, 토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원탁교육의 모범은 역사적으로 우선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아카데미의 교육방식은 강의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답과 대화였다.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도 그렇다. 사서삼경을 보아도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지 않은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산파술을 문답법으로 보았다. 사람의 인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인식이 열리도록 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답과 대화와 토론이다.

원탁교육의 두 번째 모범은 동양의 서당에 있다. 서당은, 우리처럼 학습참고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원전을 가르쳤다. 당나라 때 공영달이 쓴 『오경정의』 이후 학문이 쇠퇴했다는 말이 있다. 그것이 모범답안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소화해 놓고, 요약해 놓은 모범답안집이 범람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책보지 말고 공부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공부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학습참고서를 보는 것이다. 대입 시험뿐만이 아니라 사법고시, 교사 순위고사도 그렇다. 대입의 논술도 그렇다. 수많은 논술참고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문마저 논술에 모범답안을 강요하고 있다.

원탁교육의 세 번째 모범은 중세의 대학에 있다. 중세의 대학은 학생의 실력을 평가할 때,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가와 질문 공세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답변하는가로 결정하였다. 쓰기 평가는 동양의 과거시험에서, 구술 평가는 중세 대학의 졸업시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범답안의 학습참고서가 아닌 책이, 주입식 강의가 아닌 문답과 대화와 토론이, 찍기가 아닌 말하기가 강조되는 원탁교육만이 교육개혁의 본질이라고 본다. ■

강치원/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강원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단체인 역사문화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으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중세의 정치적 갈등』이 있고, “마르실리우스 정치사상의 중세성과 근대성”, “중세 프란치스코회 청빈론의 역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